

#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9.5)

##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분	내용	비고
은행간 환율	109.50 Tk/USD (전주대비 0.00△)	'23.09.04.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07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6.30% (전월대비 0.24△)	'23.07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8월과 9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22.0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0.0 bp	8.505 % Aug 28, 2023	No change	8.505 % Sep 4, 2023
1 Month	0.0 bp	8.505 % Aug 4, 2023	No change	8.505 % Sep 4, 2023
6 Months	0.0 bp	8.450 % Mar 5, 2023	—	8.505 % Sep 4, 2023
1 Year	+22.0 bp	8.210 % Oct 16, 2022	—	8.510 % Jan 14, 2023

Current Yield: **8.505%**

Last update 4 Sep 2023 2:15 GMT+0

### □ 8월 외화송금 유입 21.47% 감소

- 방글라데시의 8월 외화송금 유입액은 1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20억 3천만 달러에 비해 21.47% 줄었고, 지난달 19억 7천만 달러에 비해서도 19.28% 감소.

-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방글라데시의 송금 유입액은 1.6% 감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46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49억 3천만 달러에 비해 감소.
- 지금까지 국내 송금 유입액은 지난 2월 15억 6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연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15억 9천만 달러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 이 같은 감소세는 국내 외환시장이 달러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

#### □ 외환보유고, ACU 지급 후 220억 달러 아래로 하락

-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고는 아시아 청산 연맹(ACU)에 12억 달러의 수입 어음을 청산한 후 220억 달러 아래로 하락할 예정. 8월 30일 기준 외환보유고는 230억 6천만 달러.
- IMF는 지난 2월 47억 달러의 차관 중 첫 번째로 방글라데시에 4억7천 627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두 번째는 올해 말 지불 예정.
- IMF 차관협정에 따르면, 외화 순보유액은 9월에 253억 1천만 달러, 12월 말에는 260억 달러가 되어야 함.

## 2. 건설·인프라 시장 동향

#### □ ADB, 프로젝트 자금 35억 달러 마련

- 아시아개발은행(ADB), 다카 메트로의 MRT-5 남부 노선에 대한 자금 지원(35억 달러 보증)
- ADB 및 ERD간 회담에서, ADB는 25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하고 MRT-5 프로젝트의 공동 투자자로서 여타 MDB로부터 추가 10억 달러 상당의 신용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 언급.
- 방글라데시가 자국의 외환보유고 감소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해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DMTCL은 갑톨리(Gabtolli)에서 깔리얀푸르-러셀 광장-람푸르-아프타브 나가르-다셔칸디를 거쳐 다셔칸디(Kalyanpur-Russell Square-Rampura- Aftabnagar-Dasherkandi)에 이르는 MRT-5(남부)를 제안된 5,300억 Tk, 50억 달러 상당의 비용으로 건설할 예정. 가볼리에서 다셔칸디에 이르는 17.40km의 지하철 MRT 5호선 남부 노선은 2030년 준공 예정.

#### □ 고속도로의 고가화를 통한 교통흐름 개선 기대

- 9월 3일, 이 나라 최초의 고가 고속도로의 일부구간 개통,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2023년 9월 2일 셰르-e-방글라 나가르(Sher-e-Bangla Nagar)의 옛 무역 박람회장에서 첫 번째 명판을 공개함으로써 대망의 공항-팜게이트 구간(Airport-Farmgate section) 개통을 알림.
- 이를 통해, 샤잘랄 국제공항, 쿠릴, 모하칼리, 테즈가온, 팜게이트, 모그바자르, 카말라푸르(Shahjalal International Airport, Kuril, Mohakhali, Tejgaon, Farmgate, Moghbazar and Kamalapur)를 포함한 다카 남북 지역 교통 정체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구간의 길이는 약 11.5km. 고가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다카-차토 그램 고속도로 구간, 카울라, 쿠릴, 바나니, 모하칼리, 테즈가온, 모그 바자르, 카말라푸르, 사예다바드, 자트라바리에서 쿠투브할리(Kawla, Kuril, Banani, Mohakhali, Tejgaon, Moghbazar, Kamalapur, Sayedabad, Jatrabari to Kutubkhali)까지 46.73km임.
- 개통 첫날 다카 고가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2만2805대, 24시간 동안 통행료는 185만 Tk.

#### □ 사우디, 방글라데시 최대 태양광 발전소 파트너로 선정

-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PDB)는 300MW의 전력을 생산할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 램팔(Rampal) 석탄 화력 발전소와 인접한 땅을 제공할 것.
- ACWA(사우디 전력회사)가 이끄는 합작회사는 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바게르하트의 램팔우파질라(Rampal upazila of Bagerhat)에 방글라데시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고자 함.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PDB)는 램팔 석탄 화력 발전소와 인접한 부지를 300MW의 전력을 생산할 태양광 발전소에 제공할 예정.

- 공정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시행과 생산에 앞으로 약 2년 반이 소요될 것, 1단계 발전소 완공 후 같은 위치에 2단계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
- ACWA Power는 발전소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며, 또한, 사우디는 방글라데시에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3600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스 운영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하, 2019년 10월 17일 BPDB와 천연가스/R-LNG 기반 복합발전소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 국가, 스마트 고속도로 2개 개발 예정

- 방글라데시는 2023년 12월 다카-마와(Dhaka-Mawa) 고속도로에 첫 번째 스마트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 두 번째 고속도로는 조이덱푸르와 랑푸르(Joydebpur with Rangpur)를 연결하는 것으로 내년 12월에 개통될 예정.
- 도로 및 고속도로국(Roads and Highways Department (RHD)) 관계자는 두 고속도로 모두 차량 감지 시스템, 감시 카메라,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속도 감지 메커니즘 및 가변 메시지 표시를 통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도입하여 건설되고 있다고 밝힘.
- **38킬로미터의 다카-마와 고속도로**는 올해 12월 시범사업으로 ITS가 완전히 설치되는 첫 번째 스마트 고속도로가 될 것. 다카-마와 고속도로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Siddique는 이 프로젝트가 Tk 126크로어 계획의 일부로서 한국의 **KOICA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 RHD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으로 250km의 조이덱푸르-랑푸르(Joydebpur-Rangpur) 고속도로에 ITS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00만 달러를 지원. 조이덱푸르-랑푸르(Joydebpur-Rangpur) 스마트 고속도로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미얀마, 네팔 및 스리랑카를 연결하는 사섹 회랑(SASEC corridor)의 일부.

#### □ 대규모 철도, 도로 연결 프로젝트는 쿨나를 변화시킬 것

- 경제 발전을 위한 철도 및 도로 연결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메가 프로젝트가 Khulna 남서부 지역에서 시행중.
- 쿨나와 바게르하트(Bagerhat)의 몽라항을 연결하는 쿨나-몽글라 철도 연결 프로젝트는 인도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Tk4,260 크로어 프로젝트임.
- 철도 선로의 길이는 총91.87km이며, 이 중 64.75km는 광궤로써, 107개의 소형 교량과 9개의 지하차도가 건설. 럽사(Rupsa)철교가 완공되면 이 지역의 무역과 상업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항만과 EPZ가 속도를 내고 인도, 네팔, 부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몽글라항은 파드마대교 개통 이후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카와 몽글라의 거리를 170km로 줄여 국내 최대 규모인 치타공항보다 90km 가까워 짐.

#### □ RHD, 콕스바잘 고속도로에 51억 6천Tk/km당 건설비 제안

- RHD는 치타공 콕스바잘 고속도로 23.5km 구간 확장을 위해 1km당 51억 6천만 Tk의 비용을 제안. RHD에 따르면, 도로 확장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213억 6천만 Tk가 될 것.
- 기획위원회는 RHD가 제안한 상기 금액 관련, 유사한 프로젝트 대비 상당히 높은 예산 계획을 절감할 것을 권고.
- 일본 JICA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 JICA는 건설을 위해 약 887억 2천만

Tk의 자금을 제공할 것.

###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 Dengue 발글라데시, 하루 최대 21명 사망 기록

- 지난 토요일(2023년 9월 1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21명이 Dengue로 숨졌는데, 이는 발글라데시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하루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수치.
- 모기 매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올해 618명으로 증가.
- 보건 서비스 국장(DGHS)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2,35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바이러스 발열로 입원.
- Dengue 환자는 수도 3천903명을 포함, 모두 8천632명.
- DGHS는 올해 Dengue 환자 수가 127,694명, 회복 환자 수가 118,444명을 기록했다고 밝힘.

#### □ BNP 선거-보이콧은 발글라데시 여론조사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악화시킬 것

- 마이클 쿠젤만 워싱턴 월슨센터 남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야당인 BNP가 선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발글라데시 총선 결과에 대해 '우호적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발글라데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고 있으며, 발글라데시 정부는 자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 차기 총선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미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는 그것이 미국 정부가 발글라데시와의 미래 관계를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쿠젤만 소장이 언급.